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12.(수) 11:00 < 7.13.(목) 조간 > 배포 2023. 7. 12.(수)

장마철 산지 태양광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

- 본격 장마철을 맞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일일 점검(모니터링), 관계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 가동 등을 통해 장마철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 7. 12.(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여주시 소재의 산지 태양광발전소인 '구인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시설의 운영상황 및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산지 태양광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산업부는 특별대책의 하나로 풍수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설비에 대해 시행하는 특별안전점검(1,408개소)을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산지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 관리상황을 매일 점검(모니터링) 중이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 1544-0940)로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 중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 위험기상 조기 알림 및 피해 신고 접수처를 제공하는 기상특보 연계형 안전관리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강경성 2차관은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산업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자와 안전관리 기관은 "태양광 설비와 주변 부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접수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우 (044-203-5370)
		담당자	사무관	고승우 (044-203-53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설비를 선정(약 3,000여 개), 매년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전체 산지태양광의 안전점검 주기 강화 : 現 4년 → 改 2년

○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전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DB 구축, 점검 매뉴얼(체크리스트) 마련

□ 이행현황

○ **(특별안전점검) 산사태 취약설비*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점검 실시**

* 산사태 위험도(1·2등급), 사고이력 유무,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3,026개소 선정

- 매년 계획되어있는 정기검사 외에 **특별안전점검(1,408개소) 완료**

○ **(정기검사 강화) 취약설비 외 설비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 시행**

* 산지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의 정기검사(2년 주기) 신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2.12)

- 부지 및 구조물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점검역량 강화

○ **(안전규제 강화)**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 발급중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2회 이상인 발전사업자 REC 발급중단(RPS 고시 개정, '23.1)

○ **(기반 강화)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완료, 안전DB 구축 추진中**

- 「부지 및 구조물 점검 가이드라인」 제작, 산지태양광 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시 가이드로 활용